

숲속 생물

쓰타 야생 조류의 숲(국가 지정 조수 보호 구역)은 연중 다양한 동식물로 넘쳐납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역에 서식하는 다종다양한 동식물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한국어명, 학명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새

황금새(*Ficedula narcissina*)

이 새는 딱새의 일종으로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번식을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찾아옵니다. 황금새는 속이 비어 있는 나무의 높은 부분이나 딱따구리의 오래된 둥지 안에 둥지를 튼다. 수컷은 머리 부분이 검고, 목에서 가슴까지는 선명한 노란색입니다. 황금새를 찾는 건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지 끝에서 날아와 공중에서 벌레를 잡고, 다시 같은 헛대로 날아 돌아오는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번식기의 수컷은 특히 아름답게 지저귍니다.

산솔새(*Phylloscopus coronatus*)

멀리 인도에서 찾아오는 철새, 산솔새는 산의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펼쳐진 낙엽활엽수림을 좋아하며, 벌레를 먹이로 합니다. 몸길이 12.5cm로 몸집이 작고 등은 암녹색, 배 쪽은 회백색입니다.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큰 울음소리를 통해 있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어치(*Garrulus glandarius*)

날개에는 푸른 줄무늬가 있고 눈 주위에는 검은 반점이 있는 어치는 숲속에서 특히 눈에 띕니다. 곤충 이외에 다른 새의 알과 새끼를 잡아먹지만, 가을이 오면 땅 위의 마른 잎 아래에 있는 도토리도 먹습니다. 봄과 가을에 유난히 큰 울음소리를 내며 우는 어치는, 맹금류를 포함한 많은 새의 울음소리를 모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양이와 사람의 목소리도 흉내 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원앙(*Aix galericulata*)

원앙은 민물 부근의 나무가 많은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쓰타 지역의 늪들은 이상적인 서식지입니다. 이 물새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쓰타누마 늪, 나가누마 늪, 스게누마 늪, 효탄누마 늪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숲속에서 짹짹기를 하고 번식하며, 속이 빈 나무의 줄기에 둥지를 튼다. 수컷은 선명한 색을 띠고 있어 암컷의 수수한 색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구애하는 시기에 수컷이 가슴을 부풀리면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원앙은 너도밤나무 열매 등의 식물과 씨앗, 곤충, 작은 물고기를 먹습니다.

포유동물

일본산양(*Capricornis crispus*)

일본어 이름(가모시카)에는 사슴(鹿, 시카)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우제목 소과의 동물입니다. 양아과에 속하며, 털이 길고, 일본의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지금은 개체수가 안정화되었습니다. 다 자라도 몸높이가 1m가 되지 않는 일본산양은 인간과 만나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이쪽을 바라봅니다. 숲속에서 시선이 느껴진다면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일본산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서류

산청개구리(*Zhangixalus arboreus*)

산청개구리는 자라서 개구리가 되면 숲속에서 생활하지만, 수면에 늘어진듯 뻗어 있는 나뭇가지 위에서 짹짹하고, 그곳에 거품 같은 덩어리의 알을 낳습니다. 부화한 올챙이는 그 거품 덩어리에서 나와 물속으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자란 후 숲으로 이동합니다. 산청개구리의 하얀 난괴는 효탄누마 늪 위에 뻗어 있는 가지에서 특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곤충

에조하루매미(*Terpnosia nigricosta*)

이 작은 매미는 황갈색 몸을 가지고 있고, 머리와 가슴 부분은 약간 녹색을 띠며, 일본의 한랭한 지역에 있는 활엽수림, 특히 너도밤나무 숲에 서식합니다. 늦여름에 모습을 보이는 매미와는 달리 에조하루매미는 봄철 5월에서 6월 사이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미가 일제히 우는 소리는 새의 울음소리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기 직전에 울음을 그치고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곤들매기(*Salvelinus leucomaenis*, 홍송어)

이 민물고기는 갈색과 회색 몸에 흰색 반점이 있습니다. 수초와 곤충, 작은 물고기, 심지어 개구리와 도롱뇽 등을 먹이로 하며, 성어의 크기는 20cm 이상이 됩니다. 연어의 일종이지만, 곤들매기는 회유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을 좋아하며, 일본에서는 ‘계류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쓰타의 늪에서 곤들매기를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쓰타누마 늪의 데크, 가가미누마 늪 근처의 작은 다리, 쓰키누마 늪의 얇은 여울, 그리고 효탄누마 늪과 스게누마 늪 사이를 흐르는 개울입니다.

식물

국화바람꽃(*Anemone pseudoaltaica*)

이 다년생 들꽃은 국화(菊, 일본어로 국화는 기쿠라고 함)를 닮았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기쿠자키이치게’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봄에 낙엽수림의 임관이 삼림 속 지표면에 닿는 햇빛을 가리기 전에 흰색~보라색 꽃을 피웁니다. 축축한 토양을 좋아하고, 높이 30cm 까지 자랍니다.

버섯

화경버섯(*Omphalotus japonicus*)

이 산에서 나는 버섯은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모습을 드러내며, 대부분이 쓰러진 너도밤나무의 줄기에서 발생합니다. 색은 오렌지색, 진갈색, 자줏빛이 도는 갈색 등

다양하며, 지름 25cm 까지 자랍니다. 빛을 내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버섯은 어둠 속에서 은은한 녹색으로 빛납니다. 화경버섯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흔히 보는 버섯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화경버섯의 식중독이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칼럼]

숲의 생존 전략

절대 부러지지 않는 나무, 개비자나무

개비자나무(*Cephalotaxus harringtonii*)는 바늘 같은 잎을 가진 키가 작은 상록수입니다. 쓰타 야생 조류의 숲에는 낙엽활엽수가 대부분인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침엽수가 이 개비자나무입니다. 줄기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겨울에 내린 눈의 무게로 부러지지 않고, 휘어진 채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낙엽수의 잎이 떨어져 없어진 숲속에서 겨울에는 이 나무의 선명한 푸르름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하늘까지 뻗어 나는 덩굴식물

쓰타 야생 조류의 숲 전역에서 서식하는 덩굴식물은 머루(*Vitis coignetiae*)와 다래(*Actinidia arguta*) 2 종류입니다. 모두 성장이 빠르고 임관 위의 햇빛을 찾아 나무줄기를 감으며 위로 자라납니다. 일본에서 머루는 야마부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 식물의 열매는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었고, 덩굴은 바구니를 짜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